

# 도널드 저드

잘츠부르크 빌라 카스트  
2021년 7월 24일 - 8월 28일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 도널드 저드

《도널드 저드》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 잘츠부르크

2021년 7월 24일 - 8월 28일

오프닝: 2021년 7월 24일(토), 오전 11시 - 오후 1시

Mirabellplatz 2, 5020 Salzburg

ropac.net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 잘츠부르크는 도널드 저드의 예술적 비전을 형성한 원칙으로 정의되는 1977년부터 1991년까지의 작품들을 망라한 《DONALD JUDD(도널드 저드)》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저드의 형식적, 물질적 레퍼토리의 다양성과 그의 고유한 시각 언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수학적 비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합판(plywood)부터 채색된 나무, 플렉시 유리(plexiglass), 알루미늄 등 그가 형태와 색상 간의 관계를 탐구했던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포함, 저드 작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바닥에 설치되는 작업군(floor works)과 이전에 한 번도 전시된 적 없던 작품을 처음으로 소개한다. 전시에 소개되는 밝은 선홍색(cadmium red light)이 새겨진 바닥 작업의 초기작은 저드의 첫 개인전이 열렸던 뉴욕 그린 갤러리(Green Gallery)에서 전시된 바 있으며,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허쉬혼 미술관과 조각 정원(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에 소장되어있다.

도널드 저드의 작품은 유럽에서 1980년대와 90년대 초기에 이르러 크게 알려지고 전시되었다. 그동안 저드는 스위스에 거주하며 스위스의 제조업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알루미늄에 다양한 색채를 접목시킨 벽 조각처럼 새로운 미적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미술 평론가 래리 베리만(Larry Berryman)은 이 시기에 제작된 저드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생동감(exuberance)은 도널드 저드와 연관되어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고, 또한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그의 최근 작품들은 그의 지성만큼이나 정말 유쾌한 장난기를 담아냅니다.’ (Arts Review, 1986년 3월 14일) 당시 저드의 전시는 반 아베미술관(Van Abbemuseum)에서 기획한 1987년 주요 회고전을 포함하여 유럽 전역에 걸쳐 다수의 갤러리와 전시기관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뒤셀도르프 시립미술관(Städtische Kunsthalle)과 파리 근대 미술관 (Musée d'Art Moderne de Paris), 바르셀로나의 호안 미로 미술관(Fundació Joan Miró), 그리고 카스텔로 디 리볼리 현대미술관(Castello di Rivoli, Turin)을 순회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총 3점의 바닥 작업은 합판의 표면을 그대로 드러낸 상자 1점과 저드의 시그니처 색상인 밝은 선홍색으로 채색된 상자 2점으로 구성된다. 이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들은 다른 치수에 비해 높이가 낮은 형태로 비교적 불활성(inert) 상태이며, 각각 윗면에 다양하게 배치된 알루미늄이 박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드는 이처럼 받침대 없이 독립적으로 서 있는 나무 바닥 작업을 통해 벽에서부터, 그러니까 회화적 연관성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그의 관심은 지속해서 초기 작업에 사용했던 형태로 되돌아갔으며, 1989년부터 직사각형 바닥 상자의 새로운 연작을 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세 작품은 이 연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송합판(Douglas fir plywood)으로 제작된 이 작품들은 밝은 선홍색으로 채색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각각의 작업에는 모두 상단 평면의 길이에 맞춰 놓인 홈통이 있지만, 평면에 설치된 알루미늄 튜브 또는 실린더가 독특하여 이 연작을 구성하는 다른 작품들과 구별된다. 또한 이 연작의 일부인 두 작품, 외벽이 얇은 튜브로 이뤄져 채색되지 않은 작품과 단단한 실린더가 박혀 있는 붉은색 작품은 저드의 목장 사무실(Ranch Office)에 상설 설치되어 작가가 해당 연작에 부여한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연작 중에서 두 번째 붉은 색 작품은 현재 덴마크에 있는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Humlebaek)에서 소장 중이다.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받침대 없이 바닥에 그대로 배치된 이 합판 작업들은 관람객과 수평을 이루며 주변 환경과 사실적 또는 개념적인 경계를 없앤다. 밝은 선홍색은 저드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형식적 독립체로 여겼던 색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음을 강조한다. 밝은 선홍색은 대상의 표면적 구조와 가장자리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어두운 색조보다 대상의 형태를 더욱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와 동시에 선명한 색상은 공간에서의 강력한 시각적 존재감을 작품에 부여한다. 1961년부터 저드는 밝은 선홍색을 사용하여 나무를 채색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1971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는 색을 3차원의 개체에 대한 적정 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검은색이나 혹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면, 아마도 가장자리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흰색으로 칠한다면, 작고 순수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의 회색이 아닌, 붉은색이야말로 실제로 물체를 선명하게 하고, 그것의 윤곽과 각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색인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채색되지 않은 작품은 미술품합판의 물결무늬 같은 무아레(moiré) 패턴이 특징적이며 표면에 풍부한 촉각성을 부여한다. 관람객은 열게 칠해진 색으로 인해 재료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이로써 작품을 사물의 영역으로 더욱 나아가게 한다. 그럼에도 합판의 자연스러운 색은 색 그 자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저드는 재료와 색도(chromaticity)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일반 합판이나 콘크리트가 무색으로 여겨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것들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색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에 비해 색도 이면(혹은 그것의 부재)에 대한 저드의 고민은 이번 전시에서 병치된 채색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두 개의 벽 작품은 투명한 양극산화(anodized)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고 내부가 채색된 플렉시 유리로 처리되어있으며, 저드의 대표적인 형식인 수직의 연속 구조물, 스택(stack)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수평으로 개방된 직사각형 상자들과 내부의 구성 유닛들은 다른 매개변수 세트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벽에 설치된 폐쇄된 형태와 달리 이 작업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 관람객이 각각의 유닛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저드의 오브제가 내포한 개방성은 그에게 기술적인 관점에서뿐 아니라 작업의 개념에서도 필수적이다. 또한 빛과 대조적인 재료(유광의 플렉시 유리 표면과 무광의 알루미늄 같은)의 결합 효과는 특히 다층적인 지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상자 내부의 3차원성을 강조한다.

이번 전시에서 저드의 가장 초기작은 1977년에 제작된 벽에 고정된 합판 작품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전시되었다. 이 연작은 매우 구체적인 수치(높이 100cm, 가로 50cm, 세로 50cm)로 제작되어 ‘미터 상자(meter boxes)’ 라고도 불린다. 저드의 첫 3차원의 작품들은 나무로 제작되었는데, 그는 밀도 높은 견고함과 안정성 때문에 이 재료를 선호했다. 이 경우에도 나무의 결은 환영을 제거해야 한다는 저드의 신념에 따라 표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그는 1960년대 중반부터 금속 재료를 탐구한 후, 1972년에 재료로서 다시 합판에 관심을 가졌으며 미술품합판을 선호했다.

저드는 산업 공정에서 차용한 생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좋아했으며, 기술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예술적 경력 전반에 걸쳐 고도로 정밀한 물체를 제작하는 전문 제조업체들을 신뢰했다. 여기에 스위스에 위치한 레니 AG(Lehni AG)와 알루 멘치켄(Alu Menziken), 금속 가공을 위해 뉴욕에 본사를 둔베른슈타인 브라더스(Bernstein Brothers), 그리고 저드의 합판 작업의 주요 수공예 장인이었던 피터 발렌타인(Peter Ballantine)이 포함된다. 1980년대 후반 저드는 텍사스주 말파(Marfa)에 위치한 자신의 스튜디오 근처에 작업실을 마련하여 코텐(Cor-ten) 제작의 가능성을 심도 깊게 탐구했다.

저드는 숙련된 제조 공정과 장인 정신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며 물질적인 한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 그는 알루미늄을 압출한 이후 양극산화 처리하는 템플릿을 설계했으며, 그 결과 12가지 다른 색의 형태들이 만들어 졌다. 그 중에서 1991년에 제작된 노란색과 청록색, 검정-녹색 작업이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었다. 이 작품들은 저드가 특히 색을 중심으로 공간과 형태의 원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정교한 기하학적 구조는 재료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도널드 저드는 그의 경력 내내 상징적인 의미나 거창한 철학적 내러티브가 없는 예술적 형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작품이 스스로 말하도록 했다. 저드의 작업 방식은 언제나 연속성과 변주, 지속성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조각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변 세계를 경험하는 근본적인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저드는 비엔나(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1977; MAK, Österreichisches Museum für angewandte Kunst in 1991, 1994-95)와 인스브루크(Galerie im Taxispalais, 1974), 브레겐츠(Kunsthhaus Bregenz, 2000-01)에서의 개인전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에서 미술관 전시를 했던 역사가 깊다. 그의 작품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전시된 바 있으며, 세계 각지의 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저드의 주요 회고전이 뉴욕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2020)에서 개최되었다.

### **Press Contact**

Dr. Patricia Schmiedlechner  
patricia.schmiedlechner@ropac.net  
T +43 662 881393 10w